

보도시점 2024. 8. 2.(금) 배포 2024. 8. 2.(금)

이상덕 재외동포청장, 첫 행보는 日원폭피해 동포 보듬기

- 5일 히로시마 '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제' 참가..尹대통령 약속 지키는 것
- 6일 간사이 지역 동포사회 민생현장 방문하고 한글학교 교사도 만나

-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취임 첫 행보로 일본 원폭피해 동포 보듬기에 나선다.
 - 7월 31일 취임한 이 청장은 8월4일부터 사흘동안 일본 히로시마와 오사카를 방문한다.
- 이 청장은 8월5일 오전 원자폭탄 폭심지 근처에 세워진 히로시마평화 공원에서 열리는 제55회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제에 참가한다.
 - 이 청장의 이번 위령제 참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보듬겠다고 한 약속을 올해도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다.
 - 위령제 참석에 앞서 8월4일에는 히로시마 동포간담회도 개최한다.
- 이 청장은 위령제가 끝난 뒤 곧바로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로 이동한다.
 - 오사카와 교토 등 간사이 지역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어 재외동포청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, 재일동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.
 - 이어 8월6일에는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해 첨병 역할을 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.

- 또 재외동포들의 역사와 함께한 이쿠노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의 삶의 현장을 함께하고, 동포들의 눈높이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협력총괄과	책임자	과장직무대행	이희경	032-585-3197
	재외동포협력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박정환	032-585-3199
담당 부서	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과장	정선호	032-585-3172
	아주러시아동포과	담당자	주무관	김담	032-585-3177

